월요광장

다산 정약용과 후광 김대중

박 석 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금년은 다산 탄생 262주년이고 후광 탄생 100주년의 해이다. 지난해부터 후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독일의 브란트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라는 의미로, 세 분의 업적과 정치철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며칠 전에는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탄생 100주년 포럼이 성황을 이루었다. 세 분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정치 지도자였다. 망명-투옥 등의 온갖 시련을 거쳐 독재 권력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끝내는 집권하는 위업을 이룩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집권하여 온 인류에게 평화를 선사하는 탁월한 업적을 이룩해 세 분 모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조선왕조 시대의 학자요 관료였다. 실학을 집대성한 세계적인 학자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우리 민족 스승의 한 분이었다.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고난을 겪었듯이 다산 정약용 또한 '천주학쟁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8년의 모진 귀양살이를 했던 비운의 학자였다. 다산이야 10년의 관료 생활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현실에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후광은 죽음을 무릅쓴 고난을 뚫고 승리하여 개혁정치를 실현할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며칠 전 100주년 포럼에서 대통령 김대중의 업적을 정리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약용과 많은 공통점을 기억하게 되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대전제 아래 반독재 투쟁에 직접 몸을 던져 행동으로 양심을 지켜낸 점,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후광의 신념은 다산의 철학과 크게 근접하고 있다. 동양의 유교는 성선설(性善說)에서 모든 논리가 출발한다. 그러나 주자는 착한 성품은 이(理)다 라고 하여 성리학을 체계화하였다. 여기에 거대한 반대를 한 사람이 다산이었다. 성(性)은 이가 아니고 '기호(嗜好)'라는 독창적 학설을 세워 성기호(性嗜好)설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착하려는 경향의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정의가 실현되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고, 성+행(性+行)이 덕(德)이라는 공식을 정리하기에 도달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야 정의가 승리하고 역사가 발전한다는 후광의 철학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理)라는 관념의 세계에서 기호(嗜好)라는 경험의 세계로 변혁한 다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후광의 철학, 끝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대업을 이룩하였다. 나는 젊은 시절 이래로 행동하는 양심이 던져주는 충격을 잊지 못하고, 착한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참다운 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다산의 주장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다산의 실학사상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논리가 핵심이다. 후광은 휘호를 쓸 때마다 '실사구시'가 가장 자주 쓰던 글귀였다. 역시 다산과 후광은 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라가 온통 썩고 병들어 그대로 두면 반드시 망한다고 나라를 통째로 개혁하자던 개혁가 다산, 유신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구적인 독재가 지속된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후광, 그들은 분명히 백성들을 위해 행동했던 뛰어난 애국자들이다.

IT강국의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구현, 복지는 인권이라면서 기초생활 보장제의 도입, 의료보험, 연금개혁의 기초 확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부 신설, 화해와 협력의 통합정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개혁 정책을 실현했으니, 저술로만 남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다산 정치철학의 근간들이 후광에 이르러 들꽃처럼 만발하였다. 후광은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 어떤 경우도 무력 사용이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후광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옳은 이론인가. 전쟁의 위험이 없던 다산시대에는 없던 이론이었다.

100주년 포럼의 결론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길은 김대중 정신에 있다고 했다.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여 절대로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50년대의 북진통일같은 호전적 외교 노선을 당장 바꿔야 한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오늘의 권력,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자.

수필의 향기

길 위의 집

김 향 남
수필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존재다. 집은 그런 움직임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떠난다는 것은 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며 돌아온다는 것은 집으로의 귀환을 뜻한다. 집은 나의 중심인 동시에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 된다. '공간의 시학'을 펴낸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육체이자 영혼이며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다'라고 쓴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거주하는 자의 몽상을 지켜주고, 몽상하는 이를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꿈꾸게 해준다. 우리의 삶과 추억과 꿈을 한데 통합하는 가장 큰 힘의 하나가 곧 집이라는 말이겠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시간을 거쳐 왔다기보다 어떤 공간 혹은 집을 살아온 듯이 느껴지는 거다. 흙과 나무로 지어진 유년의 집과 마당, 오빠네에 끼어 살던 청소년기의 집, 바다가 가까운 작은 신혼방,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 살던 아파트는 내가 통과해온 내 삶의 주요 거점들이다. 아주 어린 꼬마 아이와 좀 더 큰 나, 사춘기의 나와 성인이 된 나, 신혼의 나와 아이 엄마가 된 나의 모습이 때론 숏폼처럼 때론 슬로우모션처럼 지나갈 때 그 배경에는 언제나 집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꿈 꾸고 방황하고 다시 희망하기를 거듭하였다.

지나온 삶이 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더 애틋하게 그립다. 아장거리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도록 살았던 집, 네 식구가 오순도순 함께했던 집, 그만큼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쌓인 곳이다. 거기 사는 동안 다른 곳을 원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어울려 지내던 이웃들이 쏙쏙 빠져나가도 나는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 지내기에 불편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집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떠날 까닭이 뭔가. 식구들 돌보랴 일터에 나가랴 늦깎이 공부하랴, 딴 데 마음 둘 수도 없었지만….

붙잡는 건 또 있었다. 창밖의 벚나무는 볼 때마다 새로웠다. 꽃피어 화르르 날리는가 싶으면 초록이 짙어졌고, 무성하다 싶으면 금세 나목이 되었다. 운치 좋은 정자도 있었다. 지붕 위로 노란 은행잎이 내리거나 소복하게 흰 눈이 쌓일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늘 다니는 거리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다. 없던 가게가 새로 생기고 있던 가게가 없어지기도 했다. 이발소도 문구점도 분식집도 있다가 없어졌다. 길모퉁이 식당은 어느 날 문득 카페로 변신해 있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들을 기웃대며 걸을 때면, 동네 어귀에 서 있는 고목처럼 늙어가도 괜찮지 싶었다.

동네 산책로, 그곳은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길이었다.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거대한 미술품처럼, 바깥쪽은 철제 벽을 높이 세워 차들의 소음을 차단하고 안쪽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드높이 하늘을 들여놓았다. 그대로 두었다면 온갖 소음에다 오물이나 내던져진 쓰레기장에 불과했을 텐데, 누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키 큰 메타세쿼이아 아래 맥문동꽃이 피거나 꽃무릇이 일제히 붉디붉게 뒤덮이면 덩달아 작품이 된 느낌이었다.

그 집 그 동네를 떠나오고 난 뒤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있다. 수많은 상실을 경험한 자의 초라한 자구책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효과는 상당하다. 우리는 절대 붙박이가 아니라는 것,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끊임없이 욕망하고 움직이는 길 위의 존재라는 거다. 저 너머를 동경하는 여행자들이다. 그러니 무엇을 많이, 오래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왜냐면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니까. 길 떠나는 자는 짐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동화 속의 '한스'가 행복했던 이유도 가벼웠기 때문이니까.

집은 누구에게나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거주하는 자의 몽상을 지켜주고 몽상하는 이를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꿈꾸게 해준다. 과거의 집이거나 현재의 집이거나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집이거나 모든 집은 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부단히 떠나야 하는 존재에게 집은 가방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여행자의 몸은 가벼울수록 좋다. 약간의 쓸쓸함과 미열, 아쉬움 정도는 챙겨가도 좋다.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다.

지금 나는 능선이 순하고 부드러운 산 아래 있지만, 언제 또 이곳을 떠나게 될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언젠가는 아주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간신히 알고 있을 뿐이다. 하여 너무 상심할 일도, 고집스레 집착할 일도 없다. '지금 여기'나 잘 챙겨볼 일이다.

기 고

민생 시름 덜어줄 '생활안정지원금'

문 인
광주시 북구청장

지난달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로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144명)들이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 획득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올림픽에서 성과는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최근 지역 뉴스에 의하면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 모녀 역시 빚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장례비와 아파트 관리비가 든 봉투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도 있다.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연을 마주하게 되면 업무를 함에 있어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현상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북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수는 2022년 2만 7170세대에서 2023년 2만 8018세대, 올해는 2만 8466세대로 2년 만에 1296세대가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년 전보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음식업 등 광주지역 14개 업종 사업자는 24만 8256명으로 전년 동월(24만 2943명)보다 2.19% 늘었지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전년보다 8.5% 줄었고 1년 이상의 경우 9.7%나 줄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 광주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2019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말엔 23조 원으로 65.4%가 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언론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고독사 평균 수치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7명꼴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북구는 도깨비 같은 장마와 최장기간 이어진 열대야, 역대급 폭염 속 힘든 여름을 보낸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행사운영비나 행정사무경비 같은 예산을 절감하고,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4만 314명에게 40억여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은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로 지급한다.

10일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원을 받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놓고 기회비용이나 경제적 파급을 따지는 시각도 있었다. 물론 그러한 의견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에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외로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빌려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의 밑거름과도 같은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의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북구의회 그리고 지원금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북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냉방비 걱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을 저소득 이웃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

社 說

윤 대통령 광주현안 약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년 동안 제자리인 지역 현안과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실증랠리 확산 사업(AI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광주시와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즉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AI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AI영재고의 차질 없는 개교와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 이전 문제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의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뿐만 아니라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보면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별개인 경우가 상당수였다. 예산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따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추진하더라도 사업비를 깎아 사업 진행이 더딘 경우도 많았다. 광주시는 향후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이번 윤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지구촌 미술축제로 거듭나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7일 개막을 시작으로 86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31개국에서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기관과 기획자, 기관과 국가의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파빌리온 전시다. 사상 처음 '광주 정신'을 담아 선보인 '광주관'은 불평등과 이기심이 만연한 지구촌에 공동체와 연대, 포용과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주 전시관이 있는 용봉동은 물론 양림동 일대 등 광주시내 곳곳에 볼거리를 배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점도 대중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때마침 민생토론회 참석차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엔날레 현장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고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비엔날레로 그동안 나름의 위상을 다져왔다. 하지만 부산비엔날레 등 국내에서도 경쟁자가 등장해 관람객을 나눠 갖는데다 실험적인 작품 중심으로 대중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기는 했지만 한 단계 레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전시관 신축이라는 정부 지원도 받게 돼 하드웨어 측면에선 나무랄 데가 없게 됐다. 이제 어느덧 30주년이란 나이테가 쌓인 만큼 보다 신선한 소프트웨어로 지구촌을 대표하는 미술축제로 확고한 위상을 다져야 한다. 로컬성과 대중성을 담보로 한 소프트웨어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千佛天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雲住寺)는 베일에 싸여 있다. 사찰 창건자로 도선 국사와 혜명 스님이 거론됐으나 11세기로 추정되는 사찰의 건립 시기와 맞물리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도선은 9세기, 혜명은 10세기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운주사 창건을 전하는 기록이 17세에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후대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공교롭게도 혜명이 창건했다는 기록을 전하는 '동국여지지'가 처음 등장한 시점이 1656년, 도선이 주도했다는 내용이 수록된 '도선국사실록'의 출간도 1657년이다.

운주사는 석불 108구와 석탑 21기가 집중돼 있는 보기 드문 공간이다. 전문가들은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특징으로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파격미를 꼽는다. 탑신(塔身)에 새겨진 마름모, 십자꽃무늬, 수직선 등 문양은 북방 실크로드 불교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석조물서 드러난 극도의 변형과 왜곡, 추상화, 정교함이 떨어져 보이는 특징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장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운주사 석조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든 이들은 여전히 미궁이다.

정성권 단국대 교수는 최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에서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만든 이들이 요(遼)나라에서 고려에 유입된 거란 유민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운주사 석불이 북방 초원지대의 석인상과 상통한다는 설명이다. 평면 형태의 얼굴에 눈동자와 입을 생략하고 눈썹과 코만 T자 형태로 새기는 양식 때문이다. 운주사 석조불감(보물 제797호)도 요나라 초대 황제 야율아보기(872~926)를 안장한 석실과 닮았다고 한다. 정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석불·석탑을 만든 거란 유민이 운주사 앞 마을(중장터)에 살았다고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북방 유목문화와 정착문화가 어우러진 용광로가 화순 운주사라는 얘기다.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화순군의 노력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창건 비밀이 밝혀지고 운주사가 세계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고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